

순천만 흑두루미 '농약 중독' 떼죽음

市 밀렵꾼 단속 뒷집... 재발방지 시급

순천만에서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사인이 '농약중독'으로 나타나 밀렵꾼에 대한 단속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순천만 철새농업지구 농경지 내에서 흑두루미 사체 4구가 발견된 데 이어 14·15일에도 폐사된 흑두루미가 한 마리씩 추가로 발견됐다. <사진>

시는 조류인플루엔자(AD)나 전염병 감염 여부, 독극물 중독 등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흑두루미의 사체

를 수거해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에 조사·의뢰한 결과 '농약(포스파미드) 중독'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순천 환경운동연합과 동부지역사회 연구소는 지난 3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순천만에서 발견된 흑두루미의 집단 폐사는 순천시의 순천만 철새관리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흑두루미의 집단 폐사에 대한 순천시의 단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내 유일한 흑두루미의 월동지인 순천만에서 6개체 이상의 흑두루미가 독극물에 의해 폐사하였다



는 사실만으로도 '탐사르 습지'로서의 위상 실추는 물론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순천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던 폐사에 대한 순천시의 단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순천만에서 독극물 중독에 의한 철

새 집단폐사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오리 25마리·독수리 2마리·멧비둘기 1마리가 독극물 중독에 의해 떼죽음을 당했고, 2009년 오리 40마리가 농약 섞인 볍씨를 먹고 집단 폐사했다. 희귀 철새인 흑두루미가 집단 폐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경찰에 흑두루미 집단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지속적으로 습지보전 지역 내에서 상시 밀렵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순천만 방문객과 철새 탐방객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겨울 661마리의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을 찾아와 월동, 역대 최고의 개체수를 기록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구례경찰 '열린교실' 호응

구례경찰(서장 관순기)이 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열린 교실'운영,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사진>

구례경찰서는 전·외경중 교수능력이 있는 대원으로 하여금 매주 수요일 교육환경이 열악한 구례지역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자녀 9명(초등 2·중등 7명)을 대상으로 학습능력을 향

상시키고 소외된 계층에 더욱 다가서는 '열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열린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구례 북초등학교 5학년 최모 학생 학부모는 "가정형편상 학교수업 이외에 학원·과외 등 학습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과외 형식의 교육을 받게 됐다"며 "무엇보다 주유 교과내용정리가 되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구례고 '청소년 성취 포상제' 도전 눈길

지리산서 자기계발·봉사활동

최근 학교폭력과 왕따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청소년들이 국립공원에서 자기계발과 탐험활동 등을 하며 가치관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청소년 성취 포상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리산 남부사무소(소장 박기연)는 "구례고등학교 학생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인증에 도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는 왕따·학교폭력·게임 중독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적 상황을 탈피해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건전한 자아형성을 할 수 있

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봉사활동 ▲자기계발 ▲신체단련 ▲탐험활동 등 4가지 분야로 구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분야별 프로그램에 12시간 이상씩 참여해 일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증을 받게 된다.

구례고등학교 학생들은 고요생태계 보존을 위해 외래 식물을 제거하거나 국립공원 보호캠페인 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 자기계발 일환으로 지리산에 서식하는 야생화와 포유류, 곤충 등 고유 동·식물에 대해 배울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여수를 세계 4대 미항으로 가꾸자

시민대토론회서 제기

2012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통해 여수시의 '세계 4대미항(美港)가꾸기'가 본격화된다. 세계 3대 미항은 호주 시드니, 이탈리아 나폴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꼽는다.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와 여수EXPO 시민포럼은 지난달 30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세계 4대 미항 여수가꾸기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규 해양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수의 자연자원은 미항을 만드는데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깨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여수박람회를 계기로 이를 한데 엮어 '미항 여수'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수엑스포 시민포럼 이상훈 사무처장은 "남해안의 한 가운데 위치한 여수는 박람회를 기점으로 남해안시대를 열고 해양시대를 열 어갈 시대적 소명과 기회를 함께 안고 있다"며 "남해안 선별트사업과 연계, 세계4대 미항의 시대로 나아가길 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호원대 장병권 교수, 국토연구원 임영대 박사, 한국관광공사 김재호 박사, 여수상공회의소 정병식 부장 등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진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이번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여수시가 세계4대 미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록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축사를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는 '미항 여수'를 '세계 4대 미항'으로 각인시켜나갈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임택기자 mtim@



월드 아트서커스 페스티벌 봉사단 발대식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고등학생 자원봉사단을 앞으로 페스티벌 관련 홍보를 발송 작업을 비롯해 온라인 SNS매체 홍보활동, 행사기간중 공연장 안내 등을 맡게 된다.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고등학생 자원봉사단이 지난달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홍보포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봉사단은 앞으로 페스티벌 관련 홍보를 발송 작업을 비롯해 온라인 SNS매체 홍보활동, 행사기간중 공연장 안내 등을 맡게 된다.

(광양시 제공)

전 북



남원 햇감자 수확

남원시 금지면 감자작목반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지난해 가을에 파종한 햇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금지면 176농가는 58.9ha에서 감자를 재배해 연간 40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역 주변 2만㎡ 본격 개발

2014년까지 상업·편의시설 추진

남원시 신정동 남원역 주변이 본격 개발된다.

남원시는 "남원역 앞 2만㎡ 부지에 상업·편의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오는 2014년까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

를 마치고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동의를 얻었다.

시는 연말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요되는 사업예산(추정)은 32억원이다.

남원역은 지난 2004년 8월 시내 중

심가에서 외곽지역인 신역사로 이전 후 KTX 운행 등 이용객은 늘고 있으나 편의시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남원시 도시과 김부환 담당은 "남원역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 이용객에게 서비스 증진과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전북해상 1000t급 경비함

군산해경, 한강1호 취역식

전북 해상에 1000t급 해양경찰 경비함<사진>이 배치된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오는 4일 1000t급 경비함인 '한강1호(1001함)'의 취역식을 갖는다.

'한강 1호'(길이 91m, 너비 11.9m)는 워터 제트엔진 3대를 장착, 최대 30노트(56km/h) 속력으로 4000마일(7400km)을 항속할 수 있다.

경비함에는 40mm 자동포 1문과 20mm 별건포 1문, 자동사격 통제장치는 물론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검문검색용 고속 단정 2척도 장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취역식 이후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 단속 등 서해 지킴이로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승기기자 nogusu@

남원시, 흑염소 농가 사료배합장비 지원

최근 한·미 FTA발효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사료값 인상에 따라 국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가 틈새 소득 창출로 흑염소를 본격 육성하고 있다.

시는 흑염소 농가에 5500만원을 투입, 사료배합(발효)장비를 지원해 78%의 사료비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사료배합(발효)장비는 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옥수수나 계분, 조사료 등을 배합해 3일정도 발효한 발효제를 일반곶목, 볏짚 등과 함께 급

여하던 장내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소화 이용률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암모니아가스 발생이 현저히 감소돼 악취줄이기 효과뿐만 아니라 사육환경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축사시설 현대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면적확대, 사육환경 개선장비·기계 지원 등을 통해 한·미 FTA를 대응한 틈새시장을 노린 농가소득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대학생 취업고민 멘토 돼 드려요

전북대 '청년잡담(JOB談)'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고민을 타파하기 위한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전주에서 열려 화제다.

전북도와 전북대는 지난 31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지방대생의 유쾌한 반란'이라는 주제로 '청년잡담(JOB談)' 제 1회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전북도와 전북대가 개

최한 청년잡담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전 등지에서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취업정보에 취약한 대학생과 여학생들이 취업담당들의 경험담을 듣고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청년잡담의 핵심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를 통해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전북취재본부=강홍수기자 knews@

단 신

'군산 새만금아카데미' 19일 시작

군산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제12기 군산 새만금아카데미'가 19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달 셋째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시청 2층 새만금 아카데미홀에서 운영된다.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5월과 6월에 2강좌를 추가로 개설, '찾아

가는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 변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오는 19일 첫 강좌는 천의 목소리 듣기 수업으로 3시에 시청 2층 새만금 아카데미홀에서 운영된다.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5월과 6월에 2강좌를 추가로 개설, '찾아

가는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 변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익산 부송동 '울림 작은도서관' 개관

'울림 작은도서관'이 지난 29일 익산시 부송동 동아 1차아파트에 문을 열었다. 이번 개관 '울림 작은도서관'은 익산에서 15번째로 조성한 작은도서관이다. 총사업비 8500만원을 투자해 114㎡의 규모로 조성한 '울림 작은도서관'은 장서 3600권을 비롯

해 정보검색대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날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300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책을 통해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교육 및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김제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선정

김제시는 최근 평생학습협의회를 열고 '2012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올해에는 ▲우수 동아리 18개 ▲신규 동아리 2개 ▲우수 프로그램 5개를 선정했다. 심사결과 실버세대로 구성돼 활발한 학습과 봉사활동으로 다

수의 수상실적 등 우수한 활동 실적을 평가받은 '김제 옥수수하모니카 동아리'가 최우수 동아리에 선정됐고, 우수 동아리에는 마을그리기·문화해설사·에사랑·화인·늘푸른 김제 실버악단이 선정됐다.

김제시 관계자는 "책을 통해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교육 및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남원경찰서, 외국인 치안봉사단 간담회

남원경찰서(서장 방춘원)는 지난 30일 외국인 치안봉사단(단장 고즈보 노리코)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009년 7개국 출신이주여성 15명으로 결성된 치안봉사단은 통역자원을 통한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운영 등 지속적

인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남원경찰서 조휴영 외사담당은 "외국인들이 인권침해나 범죄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